

# 현대시론 레포트

## 안개의 시인, 서대경

2014130069 박찬희

### 1. 들어가는 말

서대경 시인은 수업 때 처음으로 다뤘던 시인이다. 그런데 시에 대해서 대체로 무지했던 나로서는 이 젊은 시인이 남긴 충격이 꽤나 컸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초현실주의적 기법과, 안개 속을 거니는 듯 흐릿하고 위태로운 시상들, 허공으로 날아가는 담배연기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듯 담담한 태도. 이 모든 분위기들이 어우러진 그의 시집은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이미지가 되어 내 마음 속에 각인되어 버렸다. 그의 시집에서는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추운 겨울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현실 너머에서 현실을 말하는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그 갈라진 틈을 안개처럼 떠다니는 그의 의식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졌다.

### 2. 서대경 시의 시공간 - '너머'

그의 시는 지극히 다면적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화자까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유동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그가 포착하는 세계는 현실의 시공간과 괴리를 빚는다. 「봄, 기차」에서 화자는 등나무에 앉아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대상을 떠올리는 동시에 그의 공간은 '당신'이 지나가는 거리가 되었다가 목련 핀 허공이 되었다가, 열차 안이 된다. 그의 시간은 '당신'의 곁을 스쳐지나가는 때로, 다섯 시였다가 자정이 되었다가, 다시 일곱 시가 되어버린다. 그와 동시에 화자는 '당신'과 함께 있음을 상상하는 '나'와 현실의 '나'로 분열되어 버린다. 둘은 결코 합치될 수 없는 사이이다. 그러나 지극히 초현실적인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서 오히려 익숙하다. 늘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난 과거에, 혹은 일어났던 일을 가보지 않은 장소에 비추어 상상하지 않는가. 욕망과 현실의 괴리로 비롯된 초현실이 현실을 능가하는 현실감을 낳은 것이다.

모든 시는 너머에서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결코 너머를 현실, 지금 이곳과 동떨어진 시공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너머는 오히려 현실보다 더 근원적인 현실, 지금보다 더 집중된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머는 모든 예술가가 가져야 할 참된 당대성입니다. 쓰는 자는 각자만의 너머를 꿈꾸고 사유하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작가마다 고유한 시공간인 이 너머는 일상적이고 관성화된 의식이 인식하는 이곳과 저곳,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가 붕괴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서대경 인터뷰 中)

그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압축된 하나의 '카이로스'적 현재(지금 이때)이다. 그의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선형적이지 않다. 오히려 여러 시점을 동시에 재생시켜놓은 것에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의식이 현재였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꿈과 현실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버린다. 화자의 인식은 결코 선형적 인과성만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개개의 사물 혹은 사건이 주는 인상에서 그와 관련된 범주의 모든 것을 떠올리는 과정에 가깝다. 인식의 이러한 국면은 '꿈'의 작용방식과 유사하다.

… 우선 이 둥근 방을 나가야지 당신과 함께 산책하러 갈 거야 하지만 내가 눈을 뜨면 당신은 사라질 텐데 … 나는 햇살 속에서 부신 눈을 찡그리며 꿈 밖의 나를 훑쳐본다 꿈 밖에선 아직 비가 내리고 있다 … 너의 속삭임이 잠시 빗소리에 섞여든다 … 이 방을 나서면 당신도 우리의 방도 모두 사라져요 … (『경계』 中)

『경계』에서 화자의 꿈과 현실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녹아들어 존재한다. 그 경계는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다. 그와 동시에 명멸하는 텔레비전, 하얗게 폭발하는 길,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비의 이미지처럼 위태롭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 '나'와 '너'는 담담하다. 시계의 알람을 누르는 순간 현실로 돌아갈 테지만, 돌아갈 현실은 완전한 현실인가? 아직 잠이 덜 깬 꿈 속이 아닐까?

서대경의 시는 이렇듯 자꾸만 현실과 꿈을 뒤섞음으로써 현실의 굳건한 성벽을 뒤흔든다. 더 이상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내가 사유하는 시간, 내가 발 딛고 있는 장소는 확실하지 않다.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게 된다.

우리의 내적인 삶은 무수한 시공간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상의 과거-현재-미래의 단선적 시간감각은 우리가 시적인 체험을 할 때 무용지물이 됩니다. 시 쓰기가 그런 시간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상적 시간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착란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적 삶의 실체에 더 가깝다고 해야겠지요. 동시성을 느끼는 것은 삶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대경 인터뷰 中)

서대경은 이러한 식의 사유패턴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현실과 꿈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현실의 시적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억압된 욕망과 소외의 실체가 발현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억압된 욕망의 실체는 『가을밤』의 화자가 토해낸 원숭이나, 『바틀비』에서 등장하는 쥐인간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에서의 할머니의 영혼 등의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무의식이 꿈의 매개를 통해 현실에서 구체적 형상을 얻으면서 화자 혹은 등장인물들의 내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것은 현실의 논리나 질서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오로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다. 또한 그것은 현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부정이자 비판이기도 하다.

아까 말했지만, 모든 시는 너머에서 발생하고, 너머는 일상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 작품은 그 자체로 일상적 현실에 대한 부정성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아도르노의 부정성으로서의 예술 개념을 따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적 진실을 성공적으로 재현한 작품은 현실적, 사회적 질서에 대한 강력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적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외적 질서가 은폐하고 억압하는 날것 그대로의 존재

를, 외적 질서에 의해 훼손되고 상처 입은, 별거벗은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서대경 인터뷰 中)

시인은 저항시와 순수시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시인의 내면이야말로 보편적인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폭력과 억압에 의해 소외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작가 내면에 대한 진술은 곧 사회에 대한 순수한 고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원숭이, 쥐인간들, 할머니의 영혼과 같은 결여되고 불완전한 존재들은 현실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초현실주의는 꿈을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혹은 부정적인 현실을 피해 꿈으로 도피해버리는 퇴폐적인 낭만주의와는 다르다. 오히려 시인은 꿈에 현실을 투영시켜버림으로써 '꿈의 현실성'을 강조하고 '현실의 꿈과 같음'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그의 시 속 꿈은 오히려 현실보다 더 결핍되어있고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째서 나의 꿈속은 이리도 겨울, 겨울뿐이란 말인가. (철도의 밤 中)

꿈에서조차 영원한 겨울, 영원한 밤을 맞이해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을 타고 울려 퍼지는 '어두운 비명'소리, 그 고통의 찬 소리야말로 삶의 가장 절박한 절규이다. 시인은 이를 부정하려고도, 미화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의 시들을 안개처럼 감싸고 있는 아름다움의 정체는 바로 현실(과 꿈)의 불완전과 결여로부터 온다.

### 3. 맺는 말

안개는 그 자체로는 액체인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지만, 형체를 지니고 부유한다는 점에서 고체와 기체의 성질을 모두 지니는 기이한 존재다. 내가 그를 '안개의 시인'이라 칭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성질 때문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고, 현실과 꿈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갈라진 틈을 따라 부유하는 그의 화법은 대기를 수놓는 담배연기처럼 자유롭다. 이러한 경계 부수기를 통해서 그의 시는 역설적으로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현실의 부조리성을 내파한다. 무진을 잠식하는 '여귀의 입김'처럼, 그의 시는 현실과 의식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 그 단단한 구조를 뒤흔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너머'를 바라보는 서대경의 관점은 초현실주의라는 화법과 맞물려 시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4. 출처

서대경, 『백치는 대기를 느낀다』, 2012, 문학동네

네시이십분 3주년 낭독회 서대경 편 대담 - <http://blog.naver.com/jaineyre/220397282638>

김영희, 「불온한 미(美)와 다른 현실」, 『창작과 비평』 161호(2013 가을호), 352면